

# 전남경찰, 수능 후 청소년 비행 예방활동

### 선도보호활동 기간 오는 20일까지 운영

### 음주·흡연 등 일탈·범죄 선제적 대응

전남지방경찰청은 수능시험 전후로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자 '2019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기간'을 20일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선도보호 활동은 홍보·계도 기간과 집중 점검·단속활동 기간으로 나눠 수능 종료 후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의 음주·흡

연, 신분증 부정사용 등 일탈·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학생들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담배나 술을 구입하는 등의 행위는 공문서 위변조 및 부정행사 등의 범죄가 될 수 있다며 홍보·계도 활동을 펼쳤다.

주민등록 위반 소년법은 지난

2016년 36건, 2017년 43건, 지난해 24건 적발됐다. 또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업소의 업주들에게 출입 제한 표시 및 신분증을 확인해 청소년 출입을 제한해야 하고 PC방·오락실·노래방 등은 출입시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소주방·호프집 등 주류판매 업소는 신분증을 확인해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한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남경찰은 집중 점검·단속활동 기간인 14일부터 예방순찰과 단

속 및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목포서를 비롯 21개 경찰서는 수능 전후 지자체, 교육청, NGO 단체들과 합동으로 유류가 밀집지역, 무인오락실, 주점 등 청소년 탈선과 비행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예방순찰과 함께 집중 점검을 벌이게 된다.

김남현 전남경찰청장은 "실효적인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교육청, 지자체, 일반시민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순천 종합병원 탈의실 몰래카메라 30대 징역

순천의 한 종합병원 탈의실 등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설승원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설승원 판사는 "피해자 중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유족과 다른 피해자들이 암시를 탄원한 점과 함께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한밤 중 층간소음에 부역칼까지...남성 2명 입건

한밤중에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두 남성이 몸싸움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A씨(55)를, 폭행 혐의로 B씨(44)를 각각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20분쯤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자신의 집 앞 복도에서 이랫집에 사는 B씨(44)에게 부역칼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도 A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칼에 약자를 베었지만 생명이 지장은 없다. 경찰조사 결과 두 사람은 층간소음 문제로 A씨 집 앞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지면서 몸싸움을 벌이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 "춤 이상해" 지적에 흥기 휘두른 태국인 집유

술집에서 흥기를 휘두른 불법체류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살인미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이 내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점이 아닌 점, A씨가 태국으로 돌아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가뭄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검사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1일 0시10분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은 B씨(27)와 C씨(24)를 흥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 이사 온 옆집 엿보며 비밀번호로 무단침입 30대

새로 이사온 가족의 일상생활을 관찰해 확인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집에 무단침입한 30대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차용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4시33분쯤 광주에 위치한 B씨의 집에 침입하는 등 이후 8월13일까지 5차례 걸쳐 B씨의 집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옆집에 B씨의 가족이 이사를 오자 다락방 창문을 통해 B씨 가족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 가족의 일상을 관찰하며 집이 비는 시간을 알게 됐고, 이후 B씨의 가족이 외출한 틈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의 집에 들어가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 증명사진 등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옆집에 이사온 B씨 가족 집에 들어가 사생활을 엿봤다"며 "반복적으로 주거에 침입했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 학생증 등을 촬영까지 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청구 앞두고 기자회견**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법원 호사회관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한 윤모씨(52)와 재심 조력자인 박준영 변호사, 김철준 변호사, 이주희 변호사가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전남소방, 수능 긴급상황 대응태세 강화

#### 3교시 영어듣기 경적 자체

전남소방본부가 14일 실시되는 대입수험능력시험의 긴급상황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긴급구조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13일 전남도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남지역 수능 고사장 46개소에 대한 위험 요인을 사전 파악해 조치하고 시험장별 출동로 사전 확인 등 각종 사고 대비 초동대응

태세를 확립했다.

시험 당일엔 지진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해 소방력을 집중 투입하고, 3교시 영어 듣기평가 시간 등 시험 시간에는 소방차량 경적을 자체할 방침이다.

또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수험생이 유선전화 119 또는 지역 119안전센터에 전화해 미리 이송 신청을 하면 시험 당일 119구급대가 안전하게 이송 지원

할 예정이다.

병원 입원 수험생의 경우 시험 종료 후 병원 이송까지 지원한다.

시험 종료 후에는 수험생의 이용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음식점과 PC방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 예방 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마재윤 전남남도소방본부장은 "수험생의 안전하고 원활한 시험 진행과 사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온힘을 쏟겠다"며 "시험일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9로 신고해 도움을 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 중세유럽 공포로 몰아넣은 '흑사병' 중서 2명 확진

중국에서 쥐벼룩을 매개로 전염되는 흑사병 환자가 발생했다고 인민일보가 13일 보도했다.

네이멍구 자치구 시린귀러명에서 최근 흑사병 환자 2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인민일보는 전했다.

흑사병 환자 2명은 지난 3일 베이징 차오양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흑사병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

베이징 의료당국은 현재 환자들을 격리했으며, 전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 중국 SNS에는 불안은 호소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흑사병 환자들은 병원 응급실을 통해 병원에 입원했다. 흑사병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확진 판정까지 열흘 가까이 시간이 걸린 것이 불안하다"고 말했다.

한편 흑사병은 공기를 통해 전염될 수 있으며, 조기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망률은 100%다. 환자는 고열, 두통, 의식불명 등의 증상을 보인다.

주로 쥐에 기생하는 벼룩에 의해 페스트균이 옮겨져 발생하지만 드물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가 가능하다.

뉴스1

##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